

-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이 낡은 세상은 먼지로 변해서 완전히 쓸모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지각의 요가를 먼지가 될 세상에서 거두어라.
- 질문: 오직 한 아버지만이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사람들이 바라고 있느냐?
- 대답: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러나 누가 그들을 평화롭지 못하게 만드는지 모른다. 너희들은 5악이 그들에게서 평화를 빼앗는다고 그들에게 말한다. 바라트에 순수성이 있었던 때에는, 평화가 있었다. 아버지는 평화와 행복과 모든 것이 다 있는 순수한 가정의 길을 지금 다시 한번 세우고 있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해방과 해방된 삶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지 못 한다.
- 노래: 이 죄의 세상에서 안식과 편안함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소서.

옴 산티. 이것은 누구의 영적 집회(삿상)인가? 사람들이 영적인 집회에 갈 때는, 언제나 성자나 위대한 영혼이라는 이가 가디에 앉아 경전 등에서 지식을 말한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그들에게는 목적이나 목표가 없다. 그 영적 모임에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 구루의 제자들만 그에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거기에 가서 앉을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어떤 종교의 추종자들 또는 그 밖의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들은 아무개 위대한 영혼이 왔다고 믿고 그곳으로 서둘러 달려간다. 그것을 영적인 집회라고 부른다. 마하트마는 베다나 다른 어떤 경전에서 무언가를 설명할 것이다. 사실, 진리인 지고의 영혼은 오직 한 분이다. 나머지들은 모두 인간들의 동반이다. 오직 진리인 지고의 영혼만이 평범한 남자에서 나라얀으로 되는 진정한 이야기를 너희에게 말해 줄 수 있다. 보름달인 날에 나라얀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준다. 진정한 보름달은 밤이 낮처럼 변하는 때라는 것을 너희가 이제 안다; 너희들은 천상의 16도로 가득 차 있다. 사실 지식의 태양은 결코 일식으로 가려질 수 없다. 지구에 빛을 주는 이 태양과 달 등에서 일식이 일어난다. 지식의 태양은 모든 이에게 빛을 주는 그 한 분이다. “지식의 태양이 떠오르면 무지의 어둠은 사라지네”라는 그의 찬양이 노래 불린다. 여기에 앉아 있는 너희 모두는 자녀들이다. 외부인은 여기에 허락되지 않는다; 그들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아버지가 말한다: 나는 오직 너희 자녀들 앞에만 와서, 너희를 죄 많은 영혼에서 자비로운 영혼으로 바꿔서 너희가 사원에서 살 자격이 있게 만든다. 그것은 순수한 세계, 쉬바라야(쉬바의 사원)이다. 쉬바가 천국을 창조했다. 누가 거기에 사느냐? 신인들인데, 그들의 형상은 사원들에 놓여있다. 너희들은 5천년 전에 그 신인들이 바라트에 살았고 천국을 다스렸다는 것을 안다. 세상의 아무도 그들이 언제 왕국을 다스렸고 어떻게 왕국을 얻었는지 모른다. 너희 자녀들은 그것이 새로운 세계였고, 이것은 낡은 세계라는 것을 안다. 바라트 사람들은 말한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바라트가 있어야 한다; 세계의 전능한 왕국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신인들의 왕국이 있었다는 것이 영혼의 지각 안에 들어간다. 그렇지만 저 불쌍한 사람들은 누가 언제 전능한 권위자의 왕국을 세웠는지 잊어버렸다. 어떤 시점에는 그것이 분명히 존재했다. 너희들은 바라트가 황금 참새였다는 것을 안다. 너희들이 지금 누구와 앉아 있느냐? 어떤 위대한 영혼이 왔느냐? 슈리 크리슈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신이 “내가 너희에게 라자 요가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한다. 너희 자녀들의 지각을 잠그고 있던 자물쇠가 이제 열렸다. 너희들은 이 낡은 세계 전체가 먼지로 변해 완전히 쓸모 없게 된다는 것을 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누가 평화를 세울 수 있느냐? 제일 먼저 그들에게 물어라: 누가 당신들을 평화롭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5악이 그들에게서 평화롭지 못하게 만든 것에 관해 아무 것도 말하지 못할 것이다. 바라트에 순수성이 있었을 때, 거기에는 평화가 있었다. 순수한 가정의 길에서 그들은 아주 아주 행복했다. 이제 그것은 불순한 가정의 길이 되었다.

그것을 나타내는 징조들이 있다. 그들은 사원에서 이렇게 찬양의 노래를 한다: 우리는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미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미덕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하지만, 그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 아버지가 오면, 그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 노력한다. 아버지는 너희 자녀들에게 온다. 여기에는 현자나 성자가 없다. 그들은 몸을 가진 존재들이다. 너희들의 시선은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다. 우리는 쉬브 바바의 말씀을 듣고 있다. 우리는 어떤 육신의 존재도 바라보지 않는다. 크리슈나는 자궁을 통해 태어난 육신의 존재, 아이였다. 모든 영혼은 각자 자신의 몸을 갖는다. 쉬브 바바는 그 자신의 몸을 갖지 않는다. 이름은 몸에 붙이는 것이다. 영혼의 이름은 “영혼”이다. “위대한 영혼, 죄 많은 영혼”이라고 말한다. “죄 많은 지고의 영혼”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경우,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겠느냐?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은 오직 한 분이다. 그는 지고의 지역에 거하는 지고의 아버지이다. 너희들이 말한다: 지고의 영혼. 지고는 몸이 없는 한 분이다. 그들이 이것을 혼동하여 그에게 지고의 영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모든 이가 그를 기억한다: “신이며, 눈먼 자들에게 길을 보여 주소서....” 너희의 지각은 저 높이 올라가 지고의 아버지에게로 간다. 너희들에게 모든 비밀을 말해주는 분은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다. 니르바나의 나라는 해방의 나라라고 불린다. 먼저 온 영혼들은 삶 속에서의 해방(liberation-in-life)을 맞이하고, 그런 다음 해방된 삶(life of liberation)에서 그들은 굴레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 너희 자녀들은 황금시대에 한 왕국이 있었을 때, 순수성, 평화, 행복이 있었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분할되지 않은 왕국이라고 불린다. 그런 다음 분할된 왕국, 즉 악마의 왕국이 된다. 맨 처음에는 단 하나의 종교가 있었고 이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교가 있다. 너희 자녀들은 이 전체 세계 사이클을 너희의 노력에 따라 등수대로 잘 안다. 다른 어느 곳에도 목적이나 목표가 없다. 너희 자녀들은 이 나무의 씨앗인 지고의 영혼이 저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안다. 처음에는 황금시대의 창조가 있다. 그런 다음, 황금시대에서 은시대로 된다. 온 세계가 낡고 타모프라단하게 된다. 지금 너희는 낡은 세계에 있다; 그것은 새롭다고 불릴 수 없을 것이다. 황금시대가 새로운 세계였다. 철시대는 낡은 세상이라고 불린다. 세상이 낡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처음에는 새 것이었지만, 이제는 낡았다. 오늘날 바라트의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원하는데, 그 안에 새로운 바라트, 세계의 전능한 권위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바란다. 전능한 권위자가 신인 왕국을 세웠다. 그때는 다른 왕국이 없었다. 인간은 아무도 전능한 권위자, 즉 지식의 대양이 될 수 없다. ‘지식의 대양, 행복의 대양’이란 찬양은 오직 한 분 신에게만 해당된다. 너희들은 유산을 그분에게서만 받는다. 아버지 자신이 말한다: 나는 매 사이클마다 온다. 내가 와서 이 바라트를 천국으로 만든다. 그런 다음, 반 사이클이 지난 후에 너희는 그 왕국의 행운을 잃는다. 그런 다음 너희는 마야에게 패배당했다. 너희의 마음이 패배하는 문제가 아니다. 마음은 완전히 한 마리의 말처럼 된다. 마야가 마음을 휩쓸어버린다. 마야도 역시 말한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나의 군대에 있던 자가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느냐? 그녀는 아주 훌륭한 마하라티들조차도 정복한다. 너희들은 마야와 전쟁을 한다. 이것은 물리적인 무기를 갖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마야를 정복하려는 전투이다. 저러한 전쟁들은 항상 계속된다. 처음에는 칼을 들고 싸우더니 그런 다음에는 총을 발명했고, 이제는 폭탄이 있다. 지금 너희 자녀들의 지각에는 너희가 신인들이었다는 것이 들어있다. 다른 영적 집회에서는 아무도, 그들이 신인이었고, 84생을 태어났으며, 이젠 불순해졌고, 지금 다시 한번 순수해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너희들도 역시 눈이 보이지 않았었다. 육신의 눈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신성한 지식의 눈에 관한 문제이다. 영혼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잊어버렸다. 산야시들은 영혼이 지고의 영혼이라고 말해왔다. 아버지 자신이 와서 너희의 제 3의 눈을 열어준다. 그래서 그들은 신인들을 그릴 때 제 3의 눈을 묘사한다. 그들이 비슈누를 그릴 때 장신구들을 그렸듯이 신인들을 그리면서 제 3의 눈을 그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신인들의 제 3의 눈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황금시대에, 자신들이 장차 어떻게 추락할 것이고, 어떻게 지옥의 거주자들이 될 것인지 안다면, 황금시대의 행운 속에서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 지식은 지금 오직 이때만 존재한다. 너희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은 너희가 5천년만에 바바에게 왔고, 다시 한번 왕국의 행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5천년 후에 다시 올 것이다. 우리는 모든 배역을 해내는 만능 연기자들이다. 우리는 신인이 되었다가 전사가 되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브라민이 되었다. 아무도 이 지식을 모른다. “기타 팻살라”는 신의 팻살라를 의미한다. 거기에는 신의 말씀이 있다. 그 다음 저 사람들이 크리슈나의 이름을 끼워 넣었다. 지금 이때에 신 크리슈나가 얘기한 말씀이란 있을 수 없다. 그는 작은 아이였다. 사람들은 많은 것에 관해 그를 비난했다: 그에게 자식이 얼마나 많았다는니, 그가 얼마나 많은 왕비들을 유괴했다는 등등. 너희들은 모두 스스로 여기로 달려왔다; 아무도 너희를 유괴하지 않았다. 만일 정부가 있는 나라에서 남을 유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소송을 당할 것이다. 것처럼 많은 자녀들이 온 것은 놀라운 기적이다. 바티를 창조해야 했다.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아이들,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스스로 뛰어서 여기로 왔다. 일부 나무들은 (가족 전체가) 통째로 왔다. 그들은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크리슈나의 얘기와 혼동하여 온갖 잘못된 것들을 글로 썼다. 신문에 물의를 일으킬만한 뉴스들이 실렸다. 미국 신문에, “캘커타의 어떤 보석상인이 16,108명의 왕비를 원하는데 현재까지 400명을 발견했다”라고 실렸다. 이 모든 것이 게임이다.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다! 한 사이클이 지난 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의 바티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 수 있다. 너희들은 인간에서 신인으로 바뀌고 있다. 해방된 삶을 주는 분을 너희에게 속하도록 만듦으로써, 너희는 1초 만에 유산을 차지할 권리를 얻는다. 자나크도 역시 1초 만에 비전을 보았다. 사람들은 말한다: 자나크가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식을 주소서. 자나크는 은시대에 그의 왕국을 얻었다. 바바는 제일 먼저 너희에게 설명했다: 너희들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 이제 너희 자녀들은 지각으로 안다. 사람들은 쉬바 사원 앞에 황소를 놓아두었다. 인간은 황소를 타고 앉을 수 있다; 그러나 몸이 없는 쉬바가 어떻게 그것을 타겠느냐? 그러므로 사람들은 샹카르가 황소 위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묘사했다. 그들은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노래에서 “장님에게 길을 보여주소서, 다정한 신이여!”라고 들었다. 지각이 없으니, 모두가 눈 먼 장님이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 초창기에는 왕들이 왕국을 다스렸다. 누가 큰 죄를 범하면 왕이 판결을 내렸다.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판사 노릇을 한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무한한 드라마이다. 오직 너희만이 이것을 안다; 다른 이는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못 한다. 이 드라마는 한 마리의 이처럼 계속 움직이면서 진행된다; 그것은 (시계 바늘처럼) 짹짹 계속된다. 세계 사이클은 계속 돌아간다. 아무도 세계 역사와 지리를 모른다. 그들은 나무 잎새 하나가 흔들릴 때도 신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드라마이다. 파리가 한 마리 여기를 지나간다면, 다음 사이클에도 그것이 되풀이될 것이다. 드라마를 이해해야 한다. 오직 인간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바바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한다. 바바는 세계의 전능한 권위자이다. 그가 말한다: 나도 역시 드라마의 굴레에 묶여 있다. 내가 직접 와서 불순한 자들을 순수하게 만든다. 너희들은 이제 마야를 정복하기 위해 아버지에게서 힘을 받는다. 적인 마야가 너희를 완전히 가난에 찌들게 만들었다;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다. 너희들이 세계의 주인들로 되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지금 안다. 그곳에서 너희는 건강과 부와 행복을 가질 것이다;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너희들이 신에게 말한다: 와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와서 우리에게 해방과 해방된 삶을 주소서! 영혼이 소리쳐 부른다: 오 바바여! 와서 우리를 슬픔에서 해방시키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하소서! 그는 슬픔의 제거자이며 행복의 공여자로 기억된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행복을 준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그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는 모든 자녀를 행복하게 만든다. 전에는, 60세가 된 사람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은퇴 생활을 했다. 무한한 아버지가 말한다: 라반이 너희를 매우 불행하게 만든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데려가려고 지금 왔다. 니르바나의 나라와 은퇴의 단계는 같은 것이다. 은퇴의 단계, 즉 소리를 초월한다는 것은 다정한 침묵의 고향이다. 그런 다음 너희는 다정한 왕국으로 갈 것이다. 지금은 슬픔의 나라이다.

너희들은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이가 되고 있으며 남들도 역시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마지막이 되어야만 너희가 완전해질 것이다. 그들은 비슈누와 슈리 크리슈나가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이들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오직 너희만이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이들은 이런 도취감을 가질 것이다: 쉬브 바바가 우리를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이들로 만들고 계신다. 마지막에 우리는 완전해질 것이다. 너희들이 아직 완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장신구들을 신인에게 주는 것이다. 지금 이때에 너희에게 장신구를 주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신인들은 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들을 준 것이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기억과 사랑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나마스테.

**실천 요지:**

1. 무한한 드라마의 비밀을 너희 지각 안에 간직하고 “아무 것도 새로운 건 없다”라는 가르침을 확고히 해라. 소리 너머에 머물고, 은퇴의 단계로 들어가라.
2. 적인 마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능한 권위자 아버지에게서 힘을 받아라. 지식의 눈을 갖지 못한 영혼들에게 지식의 눈을 주어라.

**축복:** 장애의 정복자가 되어 관용의 힘이라는 갑옷을 입음으로써 완성의 단계를 성취해라. 완성의 단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이 같은 부주의를 밀쳐놓고 관용의 힘에서 강해져라. 관용의 힘은 너희가 모든 장애로부터 너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이다. 이 갑옷을 입지 않는 자들은 예민해진다. 그러면 그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이미 얘기했던 것을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때로 그들은 열성과 열의에 넘치고 다른 때에는 낙담한다. 이제는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사다리를 옆에 치워두고 끊임없이 열성과 열의를 지속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완성되는 단계가 가까워질 것이다.

**솔로건:** 기억과 봉사의 힘으로 여러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자비로운 것이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